

사립박물관 소방분야 관리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Fire Protection Management for Private Museum

송 창 영* · 이 중 훈**

Song, Chang-Young · Lee, Jong-Hoon

요 약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 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²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사립박물관, 소방분야, 안전관리

1. 서 론

박물관의 소장품은 대부분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료의 수집 및 해석, 전시와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학술적, 문화적 활동의 복합적인 문화-레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립박물관의 역할은 국공립박물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공공시설적인 성격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의 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서, 설립자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고 전시물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박물관의 소장품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화재 등으로 인한 파손 및 분실은 인류 역사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최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 따르면('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박물관은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규모가 큰 사립박물관만 해당되어, 정작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할 여력이 없는 중·소 사립박물관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사립박물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방분야 관리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국의 사립박물관 50

* 정희원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anchon1004@hanmail.net

** 정희원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연구원 jhlee.kids@gmail.com(교신저자)

개소를 선정하여 관리 실태 현황을 점검하여 박물관 안전점검표와 매뉴얼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이 개발된다면 사립박물관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및 종사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론

2.1. 사립박물관 안전점검의 기본방향

본 연구는 전국 50개소의 사립박물관 소방분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점검의 목적은 사립박물관 소방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분야별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사립박물관 점검 대상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대부분 소규모 시설인 현실을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정책과와 연구진 및 자문위원의 회의를 토대로 50개소를 선정하였다. 전국 사립박물관의 지역별 분포도에 따라 시설물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반총람을 (2015) 토대로 면적은 1,000㎡ 이하, 상주 인원은 5인 이하, 일평균 방문인원은 100명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점검은 박물관의 정확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각종 설비의 안전점검 및 점검표 비치상태에 대한 항목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소방분야 관리 실태 점검에 활용한 체크리스트는 <표 1>과 같다.

표 1 소방분야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양호	불량	비고
소화기	소화기 설치상태(수량, 위치 등)			
	소화기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자동화재탐지기	감지기 설치 및 작동 상태			
	수신반 설치 및 작동 상태			
옥내/옥외소화전	소화전 설치 및 작동상태(경보장치 등)			
	소화전 내부 및 호스 관리 상태(전용걸이 등으로 보관)			
	소화전 작동요령 부착 여부			
	연결살수전 설치 및 관리상태(송수압표시, 접근제한 등)			
	소화용수탱크의 관리 상태(요량표시, 수위표시, 사다리 등)			
	전동기 및 펌프의 상태			
스프링클러	배관관리 상태(색 구분, 흐름방향 표시, 보호판 설치 등)			
	스프링클러 설치상태(지하층, 무창층 등)			
	스프링클러 작동 상태			
피난유도	가스식 스프링클러 작동시 출입금지 표시 여부			
	피난유도장치 설치상태(위치, 작동 등)			
	피난유도장치 전원차단시 작동 상태			
비상조명등	비상전원 내장된 비상조명등의 전원 차단시 작동 상태			
	지하 또는 무창층의 비상조명등 설치상태			
피난탈출구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피난탈출구 진입부 및 피난통로 확보상태(방해물 적치 등)			
종합소견	※ 피난유도장치: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피난방송설비 등			

소방 분과 발표

2.2. 국내 사립박물관 안전점검 및 결과분석

안전점검 결과 박물관의 상당수는 작은 규모로 인한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유물 및 기자재 보관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난로에 적치물을 방치하는 등 대피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소화기 관리 및 배치, 옥내·옥외 소화전관리, 피난구 유도등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다수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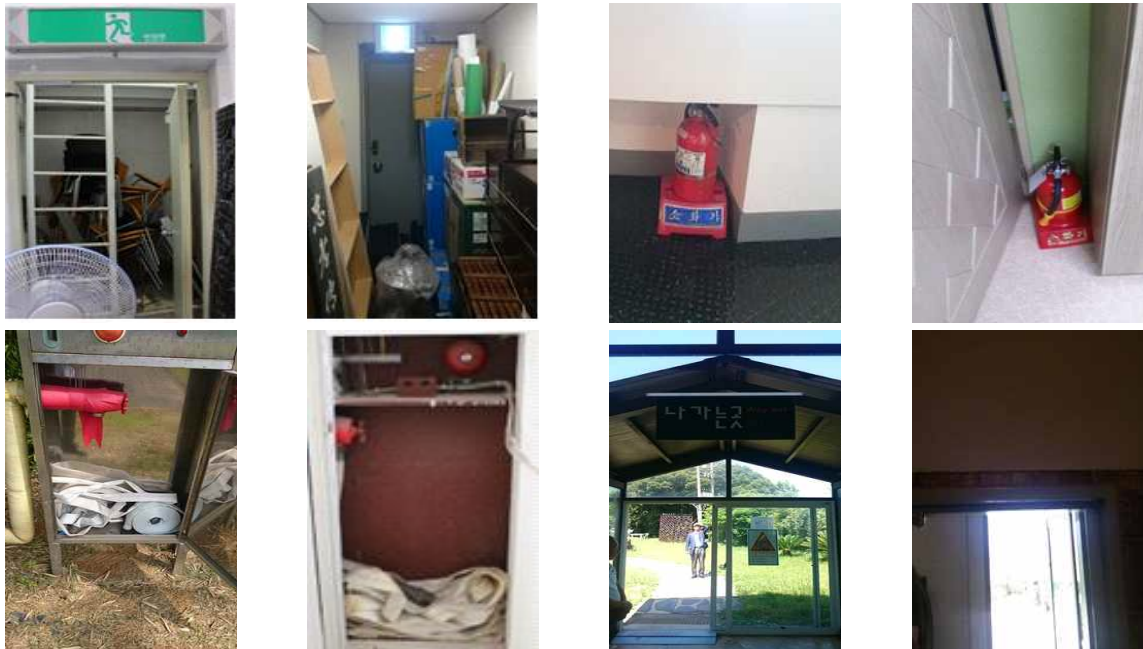


그림 1 소방분야 관리 불량 사례

종합적으로 사립박물관의 안전관리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 훈련의 부재 및 제도의 강제사항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 실태는 <표 2>의 소방분야 점검 결과와 같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소방분야 점검 결과

항목	기준	내용	결과
소화기	개수	부족	37개소(74%)
	위치	부적합	50개소(100%)
피난유도등	설치 여부	미부착	10개소(20%)
피난구	통로 확보	미확보	5개소(10%)
소화전(옥내, 옥외)	관리 상태	불량	20개소(40%)

대다수의 박물관은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와 파손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원활하게 개보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시공간의 실내 구조는 단순한 형태이나 전시물로 인해 이동 동선이 제한적이며 종사인원이 부족하여 상시적으로 실내상황을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므로, 일부 박물관의 경우 필요에 의해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화재 등의 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 박물관은 제도적으로 화재감

지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최근 주택법개정으로 주택의 경우는 단독형 화재감지기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강제성에 비춰, 그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사립박물관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장품 전시를 통해 국공립 박물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문화시설로서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도 사립박물관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등록 박물관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재정의 일종인 복권기금 지원을 시작으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등록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영세한 규모 및 조직으로 인해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장품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규모 사립박물관의 소방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전국의 사립박물관 50개소의 소방분야 관리 실태점검 연구를 수행하였다.

점검결과 상시 종사인원 부족으로 인한 소방분야 관리의 원활한 인력확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세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물 노후나 고장발생 후에도 즉각적인 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 관리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아 소방설비인 감지기, 피난유도등, 소화기, 비상구 등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립박물관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사립박물관의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등의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소장품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론교육에 더불어 소방설비(소화기, 자동제세동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실습교육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관리 매뉴얼은 사립박물관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점검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요령을 간단한 그림과 개조식 문장으로 구성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이지희 (2010) 전시공간의 화재안전을 위한 통합적 방재 가이드라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1), pp.399~407.
- 김광섭 (2003) 박물관의 화재안전, 한국화재보험협회 학술저널, 96(-), pp.62-69.